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인도 마니푸르주, 메이테이족·쿠키족 간 폭력 계속**



‘세계를 위한 성경(Bibles for the World)’의 존 푸다이트(John Pudaite)는 “마니푸르주에서 메이테이족(주로 힌두교인)이 쿠키족(주로 기독교인)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지 거의 17개월이 지났다”며 “폭력은 2023년 5월 3일부터 거의 끊임없이 계속돼 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정말 심각했다”고 전했다.

이 사태는 900명의 훈련된 쿠키족 전사들이 미얀마에서 국경을 넘어올 수 있다는 거짓 보고에서 비롯됐다. 이 소문은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메이테이 군대의 공격으로 이어졌다.

푸다이트는 “다행히 지난 9월 28일을 전후해 공격이 있었던 전선은 단 한 곳뿐이었다. 아삼주 경계에 있는 지리밤이라는 국경 마을 근처의 서부 전선이었다”고 전했다. 정부가 통제하는 군대가 공격을 막을 수 있었지만, 부족 마을에 대한 박격포 공격이 상당했다. 푸다이트는 “실제 평화유지군이 이러한 완충 지대와 전선을 평화롭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다이트에 따르면, 전쟁이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으며, 사역은 어려운 상황이다. 공급망이 끊어져 구호물자 배급도 어려워졌고, ‘세계를 위한 성경’ 신학교 등록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하지만 병원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우리 병원은 이 기간 동안 20마일 이내에 있는 약 105개의 구호 캠프에 있는 국내 실항민들을 치료하느라 계속해서 바빴다”고 말했다.

푸다이트는 “쿠키족은 수백 년 동안 이 마을, 이 언덕 지역에 살아왔지만 지금은 외부인, 침입자, 불법 이민자라고 불리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그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쫓아내려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며 “마을과 땅을 지키기 위해 마을 자원봉사자들이 최전선에 있다. 그들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에베소서 2:14-16)**

하나님, 종교적 갈등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분쟁이 끊이지 않는 메이테이족과 쿠키족을 화평케 할 유일한 근거되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들에게 들려주셔서 거짓된 소문에 속아 서로를 비난하고 분열하는 일을 그치게 하소서. 오래된 종족 간의 대립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영혼들을 돌봐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받은 성도들이 더욱 기도와 인내로 그 사랑을 증거하여 믿음 안에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 ▲ 이라크 야지디족 여성, ISIS 납치됐다 10년 만에 구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아이시시(ISIS-이슬람국가)에 납치됐던 이라크 소수민족 야지디족 여성 파지아 시도(21)가 10년 만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구출됐다고 연합뉴스가 4일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시도는 11살 때 이라크에서 ISIS에 납치된 후 인신매매돼 가자지구로 끌려갔다가, 자신을 억류하고 있던 인물이 가자 전쟁으로 목숨을 잃자 달아나 몸을 숨겼다. 그리고 구출을 기다리다 이라크와 미국, 이스라엘이 개입한 4개월에 걸친 비밀 작전 끝에 구출됐다. 현재 그녀는 이라크 북부에 있는 가족들과 다시 만났다. ISIS는 지난 2014년 야지디족 거주지역인 이라크 북부 산자르를 공격해 5,000여 명을 살해하고 6,000여 명을 납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후 수년간에 걸친 노력 끝에 3,500여 명은 돌아왔으나 아직 2,600여 명은 실종 상태이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잠언 8:34-35)**

하나님, 아이시시에 납치된 야지디족 여성이 10년 만에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2,600여 명의 실종자들을 주께 의탁하오니 보호하시고 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주여, 이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끝까지 추적하셔서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얻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 ▲ 인도네시아, 가난한 여성 대상 '쾌락 결혼' 성행

인도네시아의 한 마을에서 가난한 젊은 여성들이 신붓값을 받고 남성 관광객들의 임시 아내가 되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고 뉴스1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인용해 5일 전했다. 인도네시아의 산악 휴양지 코타 분가에서는 남성 관광객들이 여행사를 통해 현지 여성들을 소개받는다. 양측이 합의하면 짧은 비공식적인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식이 끝나면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보상으로 신붓값을 지불하고 결혼 생활을 한다. 남편이 투어를 마치고 출국하면 결혼 생활은 끝난다. 카하야라는 17세 때부터 임시 아내가 됐다고 전하며 “자신이 15번 이상 결혼했으며 ‘남편’은 모두 중동 출신의 관광객”이라고 말했다. 당시 카하야가 받은 돈은 남성이 신붓값으로 지불한 돈의 절반 정도로 “한 번의 결혼으로 300달러(40만 원)에서 500달러(67만 원)를 벌 수 있으며 집세와 병든 조부모를 돌보는 데 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은 최소 20번 이상 결혼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도네시아 법은 쾌락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시편 49:12-13)**

하나님, 결혼을 빙자한 성매매로 남녀의 거룩한 연합인 결혼을 더럽히며 이를 자신의 탐심과 정욕을 위해 이용하는 여행사와 관광객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진리를 몰라 선과 악의 기준도 없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이들을 교훈하사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소서. 또한 돈벌이 수단으로 결혼을 계속하는 여성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사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살게 하소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볼리비아 집어삼킨 산불...한반도 절반 면적 불에 탔다



남미 볼리비아에서 화재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한반도 절반 면적에 해당하는 지역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웃 브라질에서는 심각한 가뭄으로 아마존 주요 강 수위가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7일(현지시간) 볼리비아 환경단체·기상청 발표와 아마존강 수위 온라인 공개 자료 등을 보면 볼리비아에서는 인구 150만 명 규모의 산타크루스와 베니 일대를 중심으로 동부에서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

볼리비아 환경 분야 시민사회단체인 지구 재단(푼다시온 티에라)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9월 말까지 올해 화재로 인한 소실 면적은 10만 1천km<sup>2</sup>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휴전선 이남 면적(약 10만 210km<sup>2</sup>)을 넘는 셈이다. 볼리비아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5배인 109만 8천km<sup>2</sup>다.

에프라인 틸타 지구 재단 연구원은 “피해 면적 규모나 산불 발생 지점 측면에서 지금까지 기록된 모든 수치를 이미 넘어섰다”며 “앞으로 며칠 더 건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기록은 매일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산타크루스와 베니 지역이 아마존 열대우림에 걸쳐 있는 데다 볼리비아 정부 차원에서 그간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중심지로 꼽았던 터라 피해에 따른 우려는 더 크다.

지구 재단은 “복구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을 만큼 광대한 지역이 파괴됐다”며, 가축 방목 및 무리한 토지 개간과 불규칙한 정착지에서의 화전(火田) 관습을 화재 확산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웃인 브라질도 역대급 가뭄에 아마존강 수계를 중심으로 위기 상황을 맞았다. 아마조나스주 마나우스 항에서 운영하는 네그루강 일일 수위 정보 시스템을 보면 이날 수위는 12.29m로, 한 달 전(18.23m)과 비교해 6m 가까이 낮아졌다.

이는 1902년부터 이 지역 수위를 관측한 이래 가장 낮은 것이다. 기존 최저 수위는 작년에 기록됐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아마존강에서 가장 중요한 세 곳의 지류 수위가 역사적 최저치를 보인다”며 “이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지역 물류 통로이자 산림 공동체를 연결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아마존 물길이 막혔다”고 보도했다. 아마조나스 주립대 연구진은 “생태계 훼손 및 수질 악화까지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네그루강에서 샘플을 수집해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 G1은 보도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미가 4:4-5)**

하나님, 최악의 화재로 국토 면적의 1/10이 소실되고, 복구조차 쉽지 않은 처지에 놓인 볼리비아의 산불이 속히 진압되게 하소서. 두려운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때 인간의 욕심으로 비롯된 화재임을 기억하게 하사 주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가 긍휼을 구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심령을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으로 인해 볼리비아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는 교회로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회복하는 땅 되게 하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 파키스탄 기독교 소년, 무슬림 고용주에 강제 개종·불법구금

파키스탄의 편자브 주에서 17세 기독교 소년인 삼순 자베드가 무슬림 고용주에 의해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되고 불법 구금 상태에 있다고 그의 가족들이 주장하고 있다. 3일 모닝스타뉴스에 따르면, 바드루 미나라 마을의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사미나 자베드는 아들 삼순 자베드가 11월부터 우스만 만주르가 운영하는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소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 후부터 그의 부모는 아들의 행동에 변화가 생긴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삼순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아들을 찾아간 사미나에게 만주르는 “삼순은 이슬람교도가 되었으며 더 이상 가족과 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미나는 우마르에게 삼순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거절하며 이들을 내쫓았다. 만주르가 없을 때 삼순을 만난 사미나는 “삼순은 우리가 개종에 대해 물었을 때 침묵하며 눈을 피했다”며 “그가 두려워하고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했고, 우마르가 우리가 있는 것을 보면 화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삼순의 가족은 그가 두려움에 억눌려 있으며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억류된 상태라며 교회 지도자와 인권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나, 삼순의 개종 사실로 인해 지역 무슬림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에서는 종종 기독교와 힌두교 소녀들이 납치돼 강제로 개종되는 사례가 있지만, 소년이나 남성의 경우는 드물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로마서 5:5)**

하나님, 무슬림 고용주의 협박에 의한 두려움으로 강제 개종과 불법 구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삼순 형제를 보호하시고 구출하여 주십시오. 주여, 파키스탄에 만연한 기독교인 납치와 강제 개종 문제를 주께 올려드리오니 심판주 되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시하여 주소서. 삼순 형제와 그 부모와 같이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의 마음에 부으사 환난 가운데 인내로 하늘의 소망을 이루게 하옵소서.

### ▲ 레바논 피난민 최소 90만 명...어린이 35만 명·신학기 개학도 연기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치열한 교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레바논에서 피란길에 오른 주민이 최소 9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외신들을 인용해 10일 전했다. 레바논 주재 유엔 인도주의 조정관인 임란 리지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피란민의 수가 최소 90만 명으로 추산된다면서 “(레바논 국내에서 피란 중인) 국내 실향민만 60만 명이 넘고 절반 이상이 여성과 소녀들이다. 이들 중 최소 35만 명은 어린이들”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립학교의 75%가량이 대피소로 전환되면서 당초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신학기 개학도 내달 4일로 밀렸다. 레바논 내 난민 수용소 990곳 가운데 800곳 이상이 이미 과밀한 상태며, 대피소 중에는 피란민 100명당 화장실 1-2곳을 사용해야 하고 전기가 끊긴 곳이 많아, 여성과 아동들의 안전을 지키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신명기 10:18-20)**

하나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치열한 교전으로 인해 레바논에서 피란길에 오른 주민들이 최소 90만 명이나 이르고 있음을 주께 고하오니 나그네 된 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 이들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여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십시오. 피란민들에게 주의 복음과 함께 믿음을 선물로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요새이시요, 기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부로 얻는 복을 주옵소서.

“군왕들이 서로 피하여 대적하나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북중러·이란 ‘혼돈의 4중주’...“악의 축 시대로 돌아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이 가속화 할 경우 북핵 개발에까지 러시아가 손길을 뻗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27일 거론됐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을 위협하는 새로운 혼돈의 4중주(new quartet of chaos)’ 제하 기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층 심화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 등 4개국의 새로운 밀착을 집중 조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관 자리에서 물러난 존 아퀼리노를 인용, “우리는 거의 악의 축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며 2차 세계대전 직전 독일 나치와 일본, 이탈리아 파시스트의 결합에 비견할 수준으로 이들의 공조가 발전할 가능성을 지목했다.

특히 이들의 공조가 무기 등 군사 지원은 물론이고 경제 협력 및 첨단 기술 지원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무기와 산업 분야 협력이 직접적 위협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군사적 기술 이전이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내다봤다.

북한과 이란은 수백 기의 미사일과 포탄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은 간접적으로 전자 부품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이 대가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술 이전을 받고 있으며, 우주 분야에서도 심각한 협력이 이뤄지는 것으로 간주되며,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는 이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에 다음 아닌 우주 프로그램 개발을 돕고 있다”며 “북한 역시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고 전망했다. 비록 핵무기와 관련해 협력의 징후는 없지만, 첨단 군사 기술 이전이 가속한다면 향후 상황은 예단하기 어렵다고까지 우려했다.

미국 정보당국 수장 애브릴 헤인스는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 비확산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러시아, 중국, 이란이 걸프해에서 합동 훈련을 진행하며, 북러 협정이 한반도 갈등 상황에서 러시아의 개입을 의미할 수 있음을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들 4개국의 이념과 이해관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밀착이 서방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예를 들어, 미군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동시다발적 분쟁에 대응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언급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피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어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시편 2:2-4)**

하나님, 악한 일에 서로 협력하여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란의 사악한 도모를 깨뜨려 주십시오. 이러한 나라들의 행보에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몸 된 교회가 열방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자신의 힘으로 자기 왕국을 세우려는 자들이 하늘에서 웃으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하여 주소서. 교회의 기도로 온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부흥케 하시고 선교를 완성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 중국, 교회 십자가 시진핑 사진으로 대체

중국 당국이 종교 공간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중국 내 수많은 교회에서 기독교의 상징을 공산당 지도자 사진과 당 구호로 대체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7일 전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보고서에 따르면, 수많은 교회에서 십자가와 종교적 이미지가 철거되고 시진핑 주석과 고(故) 마오쩌둥 주석의 초상화로 대체됐다. 중국의 종교 자유 수호 단체인 차이나에이드(ChinaAid)는 안후이성 당국이 '안전상 위험' 때문이라는 명목으로 교회 십자가를 철거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당 선전을 위해 기독교 상징을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변화는 종교적 표현이 중국 공산당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요구하는 '종교의 신성화' 캠페인에 따른 것이다. 이 캠페인은 종교단체를 더 엄격한 정부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을 목표로 하며, 중국 공산당이 승인한 종교 자료를 지지하고 공산당 교리를 반영하도록 종교적 가르침을 수정하는 것이 포함됐다. 중국 당국은 공산당과 다양한 정부 기관이 시행하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국가 법률, 규정 및 정책을 통해 종교를 완전히 통제하려고 한다. 중국 공산당의 종교에 대한 제도적 통제의 중심에는 종종 '애국종교협회'라고 불리는 7개의 국가 종교단체와 지역 지부가 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밑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신명기 5:8,11)**

하나님, 광범위하고 복잡한 법률과 정책을 통해 종교까지도 공산당 이념에 부합시켜 정부의 권속 아래 두려하는 중국을 꾸짖어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수많은 십자가와 종교적 이미지가 철거되어도 주는 변함없이 영원한 만물의 으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때 주님을 경외하는 중국 교회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십자가의 증인으로 세워주소서.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들이 그리스도께 굴복되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시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주의 이름이 높임 받게 하옵소서.

### ▲ 국제적십자사, 에티오피아 불발탄 피해자 중 80%가 어린이

에티오피아 북부 농촌 지역에서 국제적십자사(ICRC)의 지원을 받은 불발탄 피해자 중 80%가 어린이였다고 유엔인권사이트 릴리프웹이 8일 전했다. 국제적십자사는 2023년 초부터 지금까지 불발탄 피해자 390명을 지원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불발탄이 많이 남아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위협이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 교육 및 경제적 기회는 물론 농지나 물과 같은 중요한 자원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고 있다. 불발탄을 밟아 부상을 입은 8살짜리 딸의 아버지 게 브레요하네스는 “아이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걸을 때 멀리 가지 않는다. 폭발이 너무 무섭다”며 “실제로 위험이 있다. 아이들을 두고 일을 하기도 어렵다. 아이들 중 하나가 무언가를 줍거나 밟을까 봐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이사야 49:8)**

하나님, 에티오피아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불발탄이 남아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어 큰 위험 가운데 노출된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로 인해 부상을 입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국제사회와 단체들이 이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주여, 여전히 분쟁과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에티오피아에 여호와 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며 이들을 언약 백성 삼으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은혜의 때를 맞이하게 하소서.